

“윤 정권에 총파업 저항해야 민주노조 지킨다”

윤장혁 위원장·임원 5.31 총파업 조직 현장순회 ... 현장에 5.31 총파업 절박함·당위성 알려

금속노조가 ‘노동계약 저지, 민주노조 사수, 노동·민중 생존권 쟁취 5.31 총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장혁 위원장 등 노조 임원과 상집위원, 지부 임원과 집행위원들이 현장에서 조합원과 간부들을 만나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계약 상황을 전하고, 5.31 총파업 조직을 당부하고 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5월 11일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현대모비스물류지회, 현담산업지회 현장에 차례로 방문해 5.31 총파업의 절박함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충남지부 명신지회 현장에서 충남지부 교섭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위원장은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고용노동부가 들어오려 하고, 금속노조 규약조차 강제로 바꾸라고 한다” 라면서 “공권력이 현장 선전전을 벌이는 조합원들을 수감 채워 연행하고,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막으려는 일진하이솔루스 조합원들도 수감 채워 연행했



다” 라고 탄압 국면의 심각함을 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일진 자본은 완주에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저지르는 등 자본도 윤석열을 믿고 날뛰고 있다” 라며 “5월 31일 금속노조가 강력한 투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시대에 민주노조를 지키기 어렵다는 절박함에 총파업을 결단했다” 라고 강조했다.

충남지부 교섭위원들은 ▲완성차 지부 파업 여부 ▲2022년 7월 총파업 전선 유실 ▲5.31 총파업 후 탄압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충남지부 집행위원은 ▲탄압 법률비용 노조 책임 방안 ▲지회 손해배상 노조 기금 등 처리 방안

▲중앙교섭·지부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사용자가 고소·고발 시 교섭 중단·파업 등을 검토해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지부는 아직 확답을 주지 못했지만, 기아

자동차지부는 강고하게 총파업을 조직화하고 있다” 라면서 “전국의 사업장에서 총파업 투쟁 분위기를 확산하고, 투쟁을 결의하면서 완성차 지부가 투쟁에 동참하도록 건인해야 한다” 라고 답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충남지부 집행위원의 제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침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는 5월 12일 대전충북지부 현장순회, 5월 15일 지부 운영위원회 간담회, 5월 18일 광주전남지부, 경남지부 현장순회, 5월 19일 경주지부 현장순회, 5월 24일 현대자동차 지부 임시대의원대회, 대구지부 현장순회, 경기지부 현장순회, 구미지부 현장순회 등을 이어간다.

“최소한 숨 쉴 자유를 요구한다”

노조파괴 일진하이솔루스 박살 결의대회 ... 근로감독관이 불법대체인력 투입 주도, 경찰은 수갑 연행

금속노조가 일진 자본에 일진하이솔루스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와 노조파괴 중단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 조직의 힘으로 투쟁한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 전주위원회,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5월 9일 전북 완주 일진하이솔루스 공장 앞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규탄, 민주노조 사수, 노조파괴 일진하이솔루스 박살 금속노조 전북지부 결의대회’를 함께 전개했다.

금속노조 등은 결의대회에 이어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노조파괴 악질자본의 나팔수 노동부 전주지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회와 기자회견에 노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일진하이솔루스 근처에서 노조 5차 중앙교섭을 마치고 참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윤석열은 올해 초 자본과 정부는 한 몸이라고 했다. 취임 1년 동안 벌인 친재벌 반노동 정책의 결과가 일진하이솔루스 현장에서 노동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이 투쟁은 일진 자본에 대응하는 투쟁이면서, 노동탄압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과 벌이는 투쟁이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투쟁본부 대표자들은 오늘 일진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라면서 “일진 자본이 걸어온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금속노조 전 조직의 힘으로 투쟁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 지회장은 “지회 설립 전 산재신청을 단 한 건도 할 수 없었고, 최저시급

에 초장시간 노동, 살인적인 2조2교대 근무, 주말 특근 강요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유휴창 지회장은 “우리는 노예를 거부하고 금속노조의 깃발을 들었다. 노조가 생기고 산재처리가 기본이 됐고, 교섭을 시작하고 사측과 대화로 풀기로 했다. 그렇지만 희망은 금방 꺾였다”라면서 “사측은 요구안 거부를 넘어 징계조항 28개와 노조 홍보물 사전 승인을 단협에 받으라는 헛소리를 해댔다”라고 폭로했다.

유휴창 지회장은 “쟁의권을 확보하고 간부 1일 파업, 주 52시간 초과 주말 특근 거부, 잔업 거부 2일, 취업규칙·작업표준 준수 7일을 했을 뿐인데, 사측은 5월 2일 0시 공격적 직장폐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유휴창 지회장은 “우리는 노동기본권, 안전한 일터, 최소한 숨 쉴 자유를 요구한다”라면서 “이렇게 상식적인 요구가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요구인지 처음 알았다”라고 분노했다.

유휴창 지회장은 “어차피 우리



항상 벼랑 끝에서 있었다. 이제 우리는 참지 않는다. 우리 곁에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있다. 투쟁 속에서 단련한 멋진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조합원들이 있다”라면서 “흔들리지 않으면 패배하지 않는다. 직장폐쇄로 생산이 멈춘 사측이 먼저 죽느냐, 노동조합이 죽느냐의 싸움이다. 금속노조 깃발 아래서 당당하게 살겠다”라고 결기를 보였다.

5월 8일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이 대체인력인 설비업체 인원을 현장에 다시 진입시키려 했고, 지회가 차단했다. 지회가 설비업체 인원의 작업을 함께 지켜보려고 제안했으나 근로감독관이 거부했다. 경찰은 즉시 유준 지부장과 지회 조합원 등 11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전북지부는 “노동부 전주지청은 불법대체인력 투입 협조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관계를 중재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라면서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불법대체인력 투입, 노조 설립 전부터 일진하이솔루스에서 벌어진 수많은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행정을 집행하라”라고 촉구했다.

“5.31 총파업으로 현대차 라인 멈춰야”

하청노동자 생존권 압살 현대차 규탄대회 ... 현대차 갑질로 서진 하청노동자 정리하고 위기

현대자동차 포터 휠을 만드는 서진산업의 하청노동자들이 5월 31일 거리로 내쫓길 위기다.

원청인 서진산업은 ‘임대한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사용해야 한다’라며, 5월 31일 울산 매암동 공장 폐쇄와 하청업체 동태산업에 폐업을 통보했다. 현대차는 4월 30일 해당 현장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매암동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을 경쟁업체인 ‘코리아 휠’에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5월 10일 오후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하청노동자 생존권 압살하는 현대자동차 규탄 금속노조 울산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용규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대회사에서 “현대차 자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나가라고 한다. 서진산업은 문자로 정리하고 통보했다” 라면



서 “윤석열 정권이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고, 반노동 정책으로 민주노조를 때려잡겠다고 하니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분노했다.

최용규 지부장은 “노동자에게 사형선고 내리는 현대차 재벌을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용서할 수 없다” 라며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5월 31일 총파업으로 현대자동차의 라인을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와이퍼, 한국유틸칼, 일진하이슬루스, 여기 서진산업사내하청 동지들이 폐업과 직장폐쇄에 맞서 싸우고 있다” 라면서 “노동자가 자본과 공권력에 휘둘러야 하는가. 5월 31일 위력적인 총파업을 성사해 승리를 만들자” 라고 호소했다.

손한락 금속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장은 “중학교 다니는 딸이 회사가 왜 없어지냐고 물

어보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며 “우리 조합원들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다면 함께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함께 투쟁해서 현대차 자본가들의 라인을 한 번 세워보자” 라고 외쳤다.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는 “현대차는 갑질을 멈추고 하청노동자 생존권 문제에 나서라” 라면서 “서진산업은 지난 2021년 지회와 총고용보장확약서에 합의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